

# 2017 새싹팀 \_ 글 모음집

관찰아 수고했어 지나보니 별거아니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Seoul Volunteer Center

나누고 싶은 우리 글

- 우리 처음 만났던 날
- 작은 白日場
- 멈추지 않고 써내려간 글
- 후기

### 우리 처음 만났던 날

처음 만난 날 2017년 3월 30일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한해를 우린 신입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열정으로 넘쳤던 봄을 지난 후  
우리는 시간만큼 체중이 붙어있었다.

일의 근력을 키워야 하는 시간 우리는 육체의 체중을 키웠다.  
소소한 우리 이야기를 담아 보자.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첫발을 내딛던 때  
우리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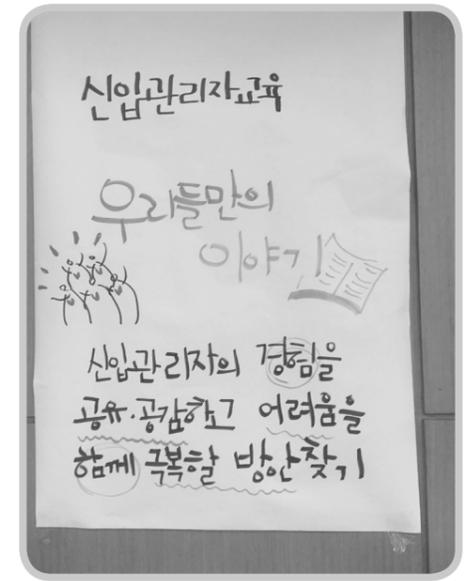
未生—完生 (미생에서 완생으로) 신입관리자 교육

“자원봉사”신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라는 정체성에 관한 명료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 채 이 길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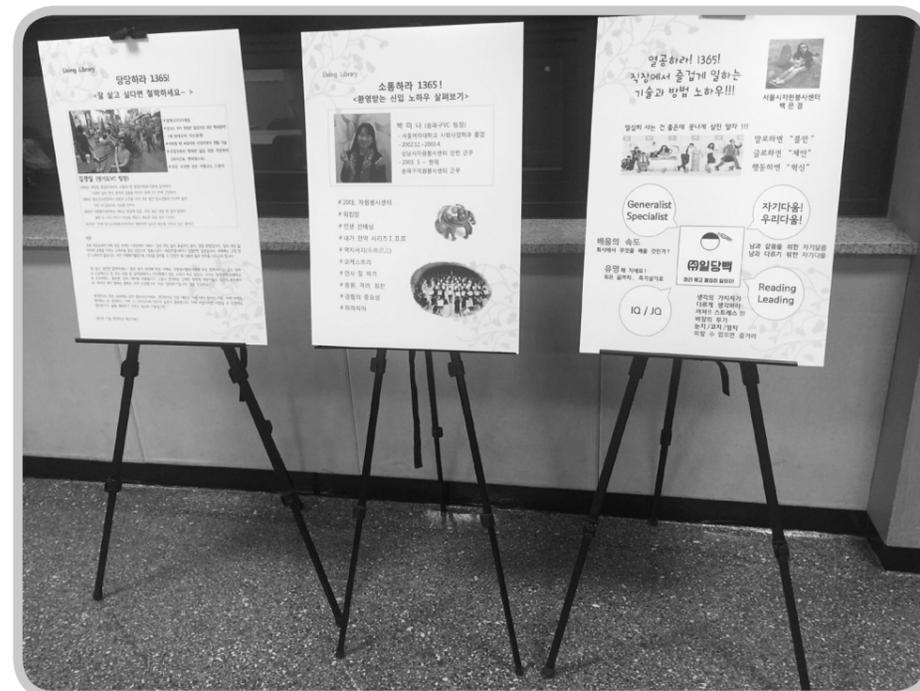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자원봉사의 철학적 가치, 자원봉사센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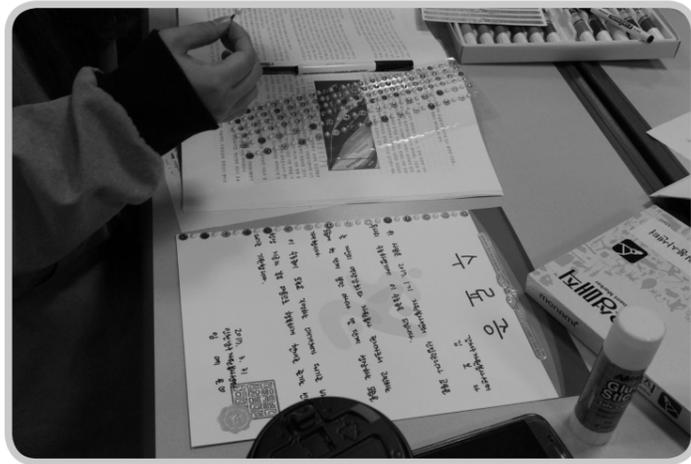
이 길에서 배워야 할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자의 자세 및 태도  
그러나 아직 신입에게 어려운 것은 생각보다 많았다.  
우리는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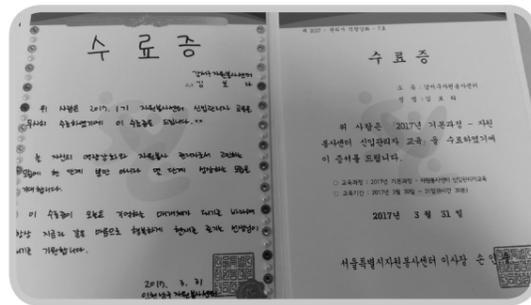
찾고, 또 찾고  
의견을 나누고 듣고, 취합하고,  
그리고 멘토 선배에게도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소통, 업무, 삶과 일의 균형에 있어서  
잘 ~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멘토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다.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 정체성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관리자를 넘어 자원봉사자를 성장시키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 서로에게 힘을 불어 넣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 했던 짝궁에게 자원봉사 관리자로 입문할 때의 초심, 지금 가진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와 응원을 적어 서로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수료장을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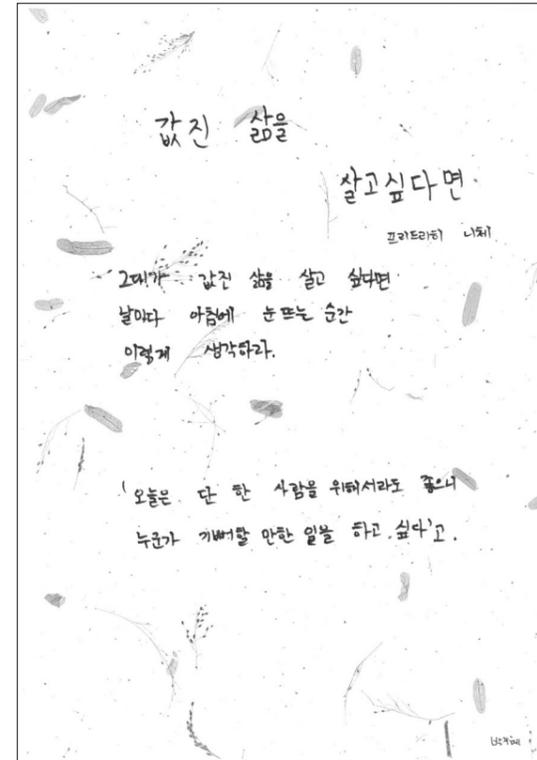


아직 미생인 것 같은 신입관리자들이 완생의 삶을 살기 위한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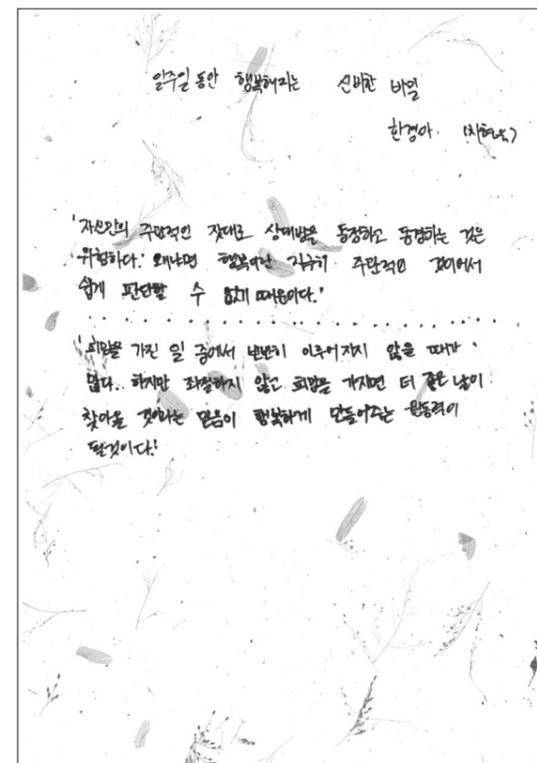


### □ 작은 白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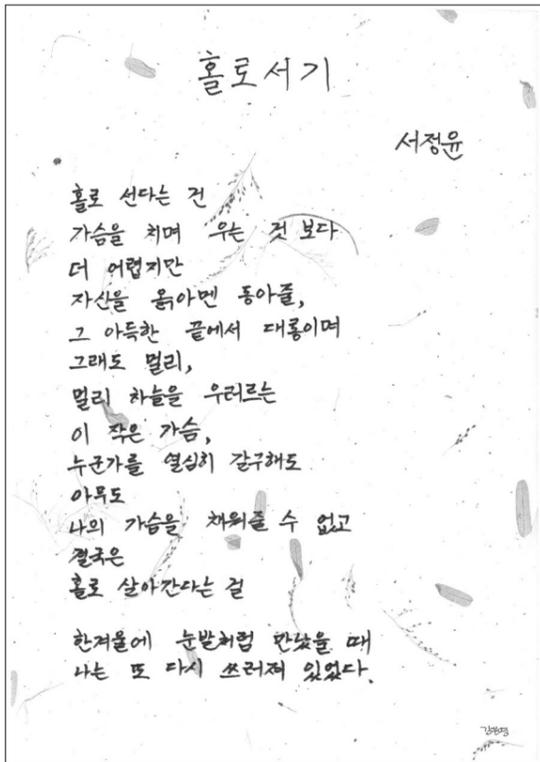
신입이 선정한 읽어 볼만한 시 몇 편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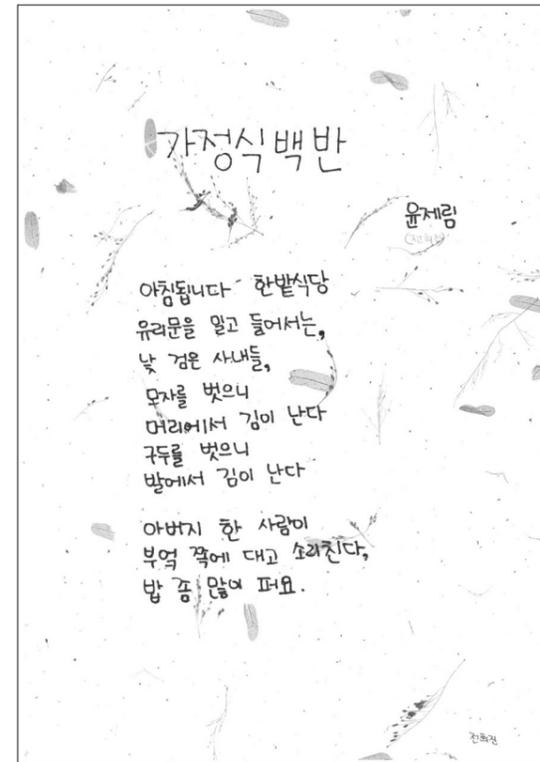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에서 힘들 때, 센터 주무관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비슷해서 선정하게 되었다. 나 하나의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가 대딛는 첫걸음을 좌우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 할 수도 있다고 그 이후로 그말을 항상 생각하며 사람을 대한다. -박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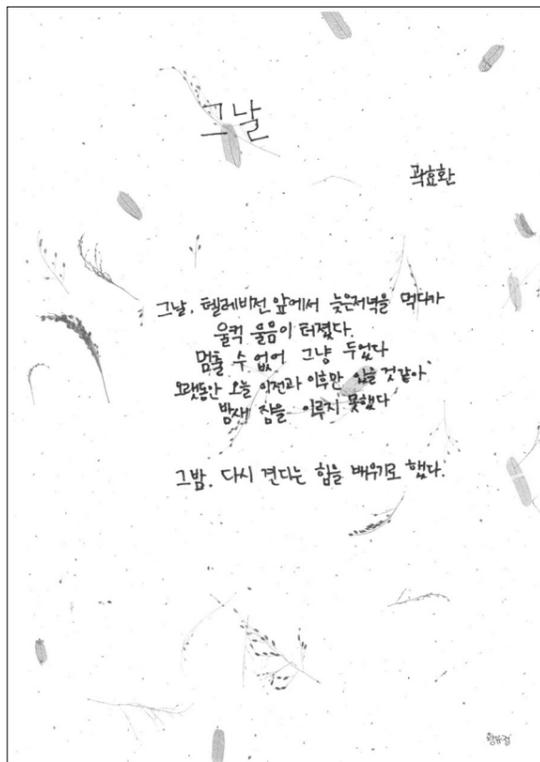
진부하고 당연한 말인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나의 잣대로써 남을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결정을 내리면 안되는 점이 내가 잘 지켜야 될 점이라서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문구는 다른 말로도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감사한 일 적기라던지 칭찬하기라던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이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털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적었습니다. -차현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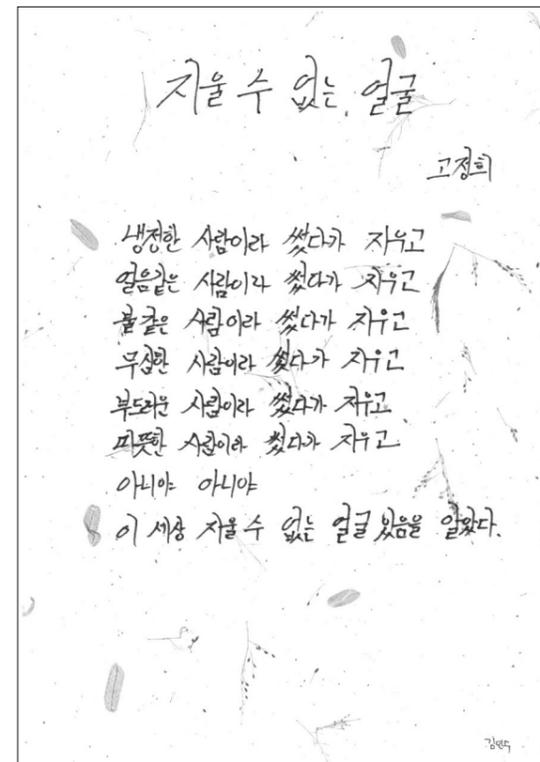
학생 때 좋아했던 시인데, 힘들 때 나의 상황(마음)을 너무 잘 말하고 있는 시여서 마음에 남아 기억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람은 혼자이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느끼며, 조금씩 조금씩, 강해지는게 다듬어지는게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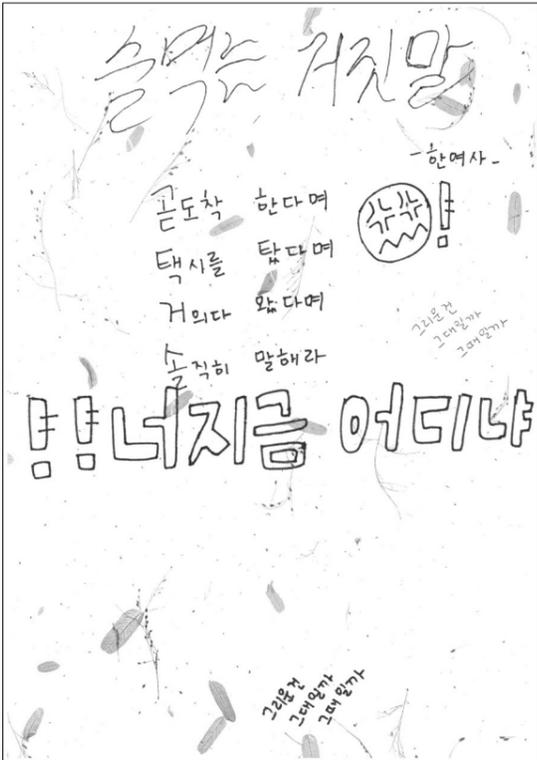
'가정식 백반'이라는 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시를 읽으면서 한구절 한구절 상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구절을 읽고나니 마음속에서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다. 집앞에 있는 작은 백반집에 열심히 일하고 와구와구 밥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고, 시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지만 나는 지금도 자기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다. -전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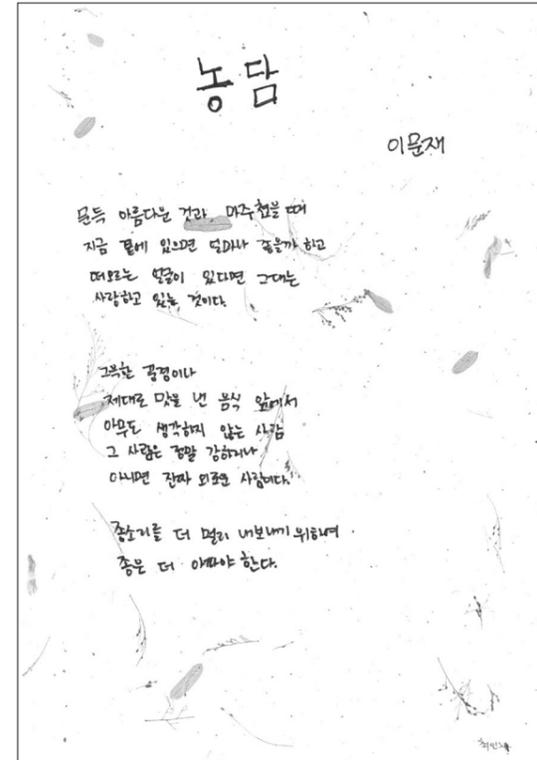
다들 한번씩 현재의 공허함을 느끼며, 또 견딜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다시한번 새길 수 있는 것 - 황유정-



이모습 저모습을 보다가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실되게 사람을 보았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시를 선정했다.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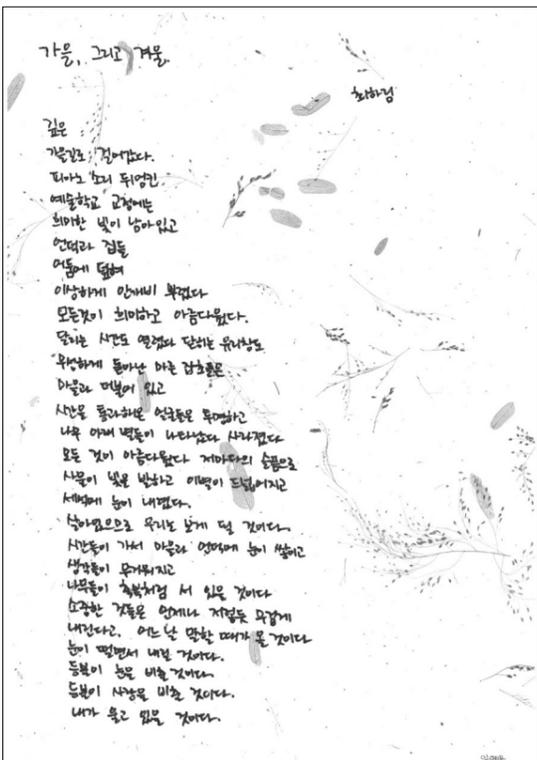
존경하는 저의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10시, 11시, 12시.. 다 전화를 받지 않죠  
한시쯤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알- “어디냐”/ 나- “택시탔어 거의 다  
왔어”-뚜-  
-한시간 후-  
어머니알- “어디냐 솔직히 말해 어디냐”  
그다음 저는 말을 아깁니다. 제입은 소중한니까요.  
이 이후 상황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 한주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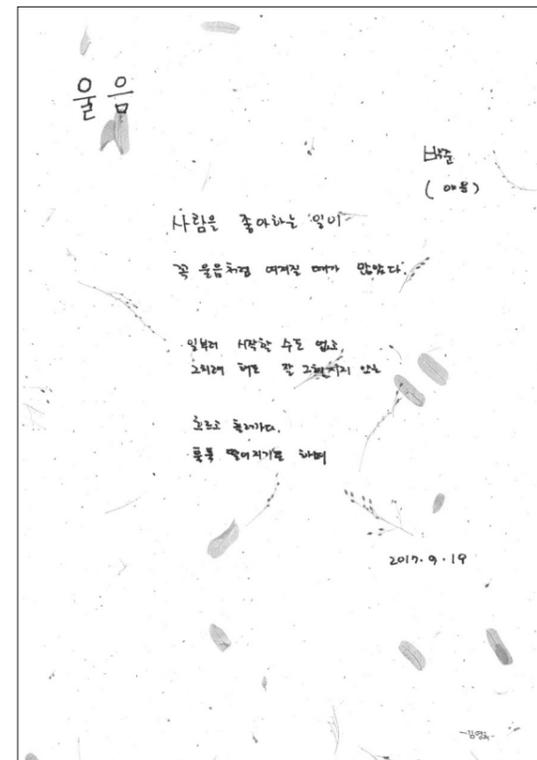
첫 번째 문단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여행가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이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매번 생각해 본  
적이 많기에 공감의 됐고

중간문단은 희노애락 살아 있음을 느끼며 사는 삶이  
제 목표인데  
그 목표의 중요성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단 같아서  
와 달았고

마지막 문단은 제가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중간 중간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어쩌면 당연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봉사자들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라는 공감과 나만 느끼고 겪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가 되었음 - 최민지-



한편의 시가 그림을 그리는 듯 눈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다.  
시를 읽으며 한편의 동화가 그려진다.  
처음에는 마냥 예쁜 가을의 교정.  
알고보면 안개비 뿌린 조금은 어두운 교정  
반짝이는 풍경은 이별을 담은 슬픈 풍경으로  
변해간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슬픈 이유는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눈물을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임예은-



울음이란 시는 사랑의 감출수 없는 느낌을 표현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시를 읽고 있는 나는 사랑처럼,  
울음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다.  
울어버리기에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런데 벌써 눈물이 떨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마치 첫사랑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 김경희 -

### □ 멈추지 않고 써내려간 글

나는 00이다.

나는 불펜이다. -김민수-

학교, 회사 혹은 다른 어떠한 곳에도 있으며 친숙한 존재이다.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일까?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 바닥에 떨어지면 또 다른 나를 찾을 뿐, 그렇지만 막상 필요할 때 찾으면 안보이는 것도 나의 속성인지 아니면 그들의 속성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나는 불펜이다.  
학교, 회사, 혹은 다른 어떠한 곳에도 있으며 친숙한 존재이다.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일까?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다. 바닥에 떨어지면 또 다른 나를 찾을 뿐 그렇지만 막상 필요할 때 찾으면 안보이는 것도 나의 속성인지 아니면 그들의 속성인지 -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나는 스마트폰이다. -임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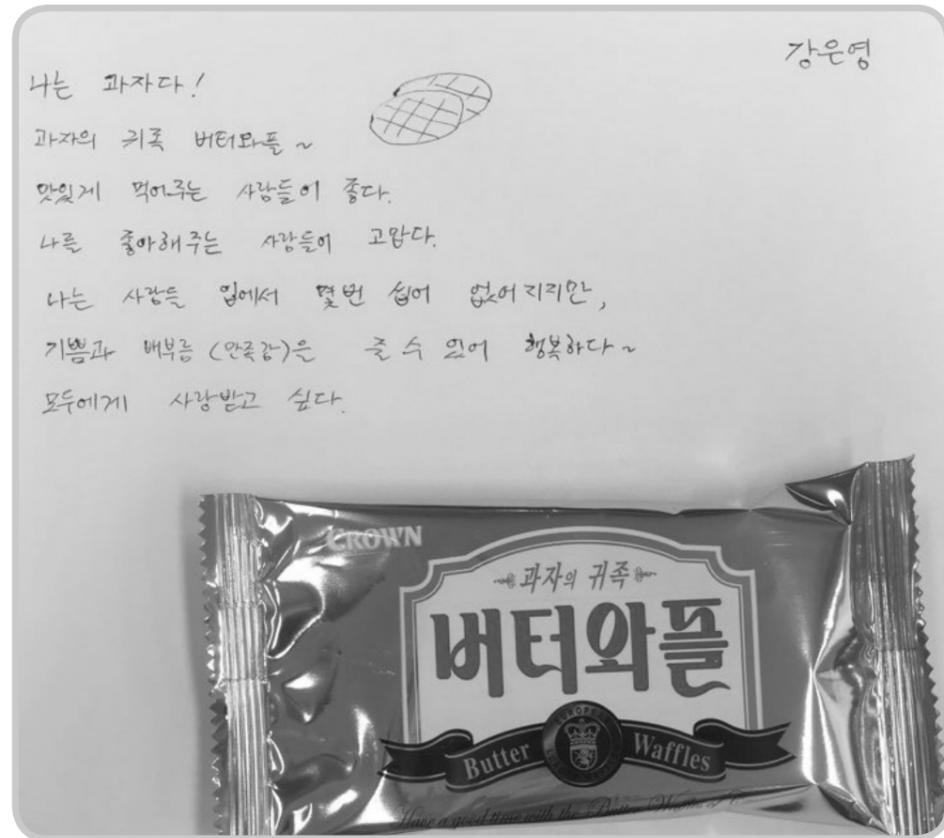
피곤하다  
사람들은 왜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  
하루 종일 사람들 손에 잡혀있으면, 내몸은 그들의 땀으로 샤워를 한다.  
찝찝하고 피곤한 삶.  
하루에 수십번 열이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은 나를 행복해 보인다.  
뭐가 그리 웃긴지 키득키득

가끔은 혼자 승질도 낸다.  
인상을 잔뜩 쓰고 버럭버럭  
혼자 있는 삶에도 희노애락이 가득하다.  
혼자 있는게 즐거운 걸까?  
난 그들의 손에 붙잡혀 아무 곳도 가지 못해 즐겁지 않은데  
사람들은 심심하지 않은가보다.  
친구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는 스마트폰이다.  
피곤하다.  
사람들은 왜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걸까?  
하루종일 사람들 손에 잡혀있으면, 내 몸은 그들의 땀으로 샤워를 한다.  
<답답하게도 않는다>  
찝찝한 피곤한 삶.  
하루에 수십번 열이 오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은 나를 행복해 보인다.  
뭐가 그리 웃긴지 키득키득.  
가끔은 혼자 승질도 낸다.  
인상을 잔뜩 쓰고 버럭버럭.  
혼자있는 삶에도 희노애락이 가득하다.  
혼자 있는게 즐거운 걸까?  
난 그들의 손에 붙잡혀 아무곳도 가지못해 즐겁지 않은데  
사람들은 심심하지 않은가보다.  
친구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는 과자다 -강은영-**

과자의 귀족 버터와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좋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고맙다.  
 나는 사람들 입에서 몇 번 씹어 없어지지만,  
 기쁨과 배부름(만족감)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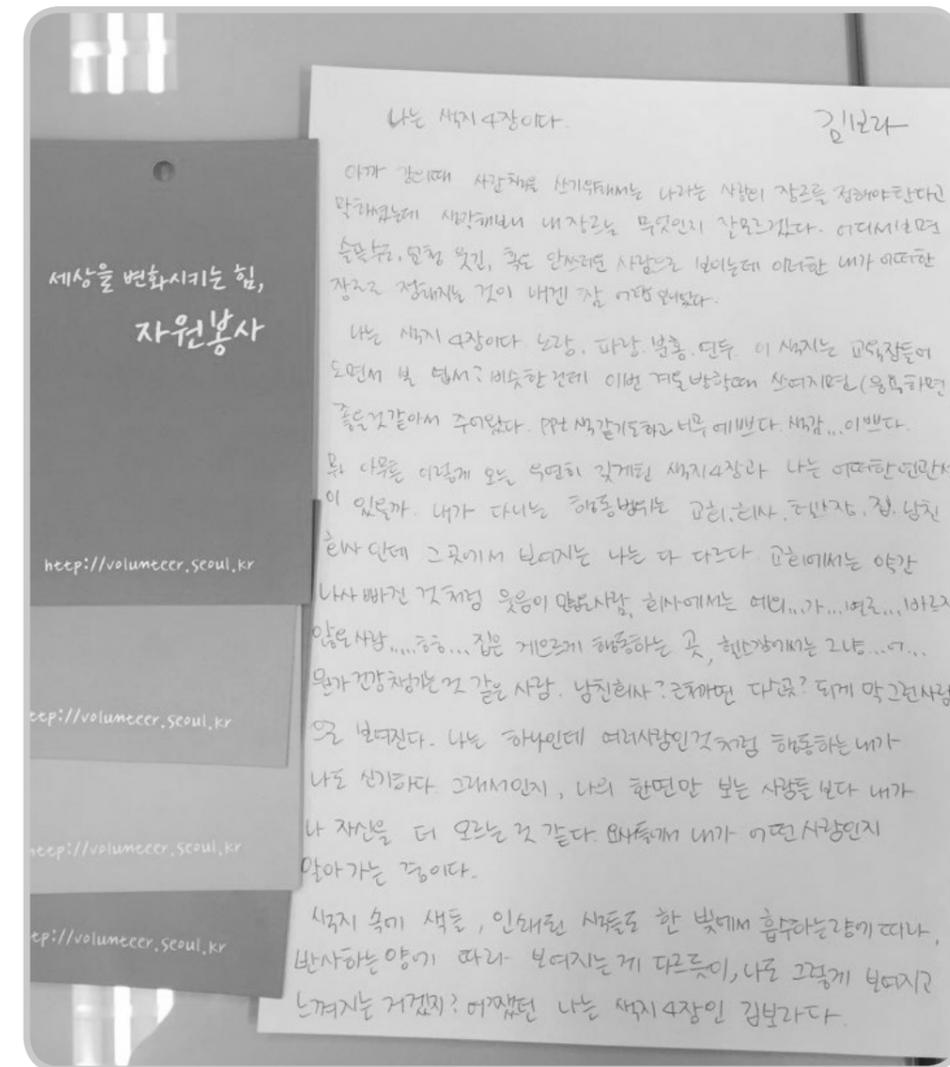


**나는 색지 4장이다. - 김보라-**

아까 강의 때, 사람책을 쓰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장르를 접해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생각해 보니 내 장르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 보면 슬플수도, 엄청 웃긴, 혹은 안쓰러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가 어떠한 장르로 정해지는 것이 내겐 참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색지 4장이다. 노랑, 파랑, 분홍, 연두, 이색지는 교육장에 들어오면서 본 업서 비슷한 건데 이번 겨울방학 때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어왔다. PPT색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색감(이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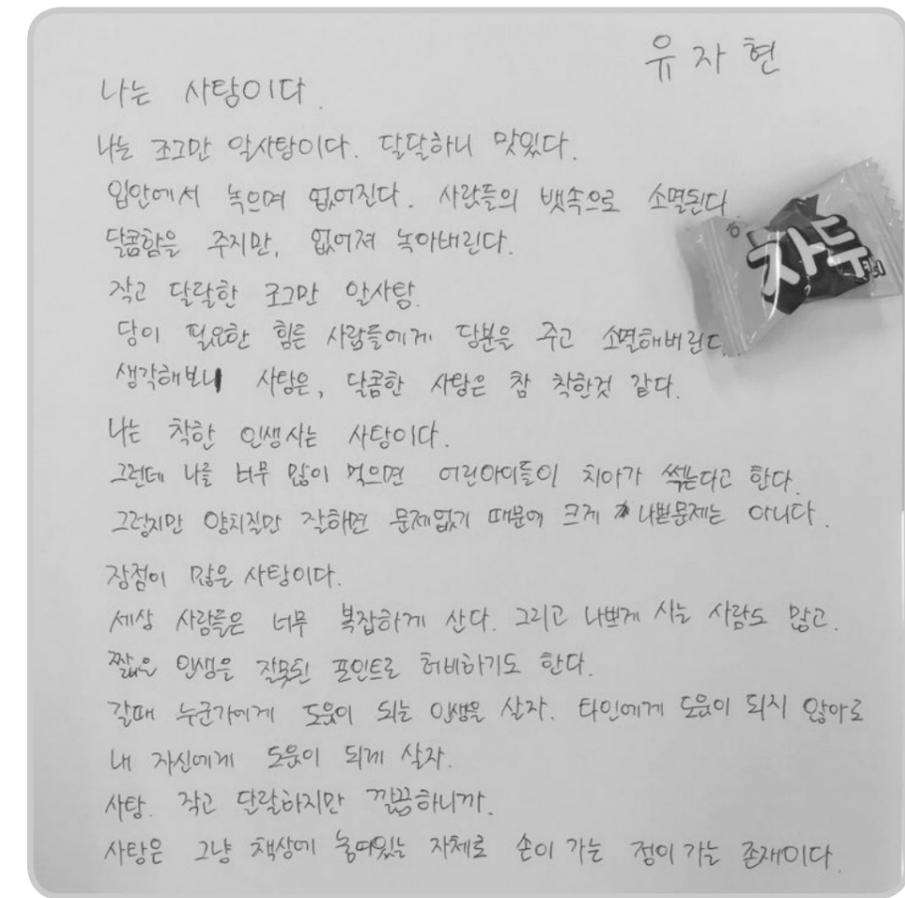
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우연히 갖게 된 색지 4장과 나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내가 다니는 행동범위는 교회, 회사, 남친, 헬스장, 집인데 그곳에서 보여지는 나는 다르다. 교회에서는 약간 나사빠진 것처럼 웃음이 많은 사람, 회사에서는 예의가 별로 바르지 않은 사람 ^^, 집은 게으르게 행동하는 곳, 헬스장에서는 그냥... 무언가 건강 챙기는 것 같은 사람, 남친회사 근처에 가면 다소곳? 되게 막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 나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내가 나도 신기하다. 그래서인지, 나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 보다 내가 나 자신을 더 모르는 것 같다. 요새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중이다.

색시 속에 색들, 인쇄된 색들도 한 빛에서 흡수하는 양에 따라 반사하는 양에 따라 보여지는 게 다르듯이, 나도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겠지? 어쨌든 나는 색지 4장 김보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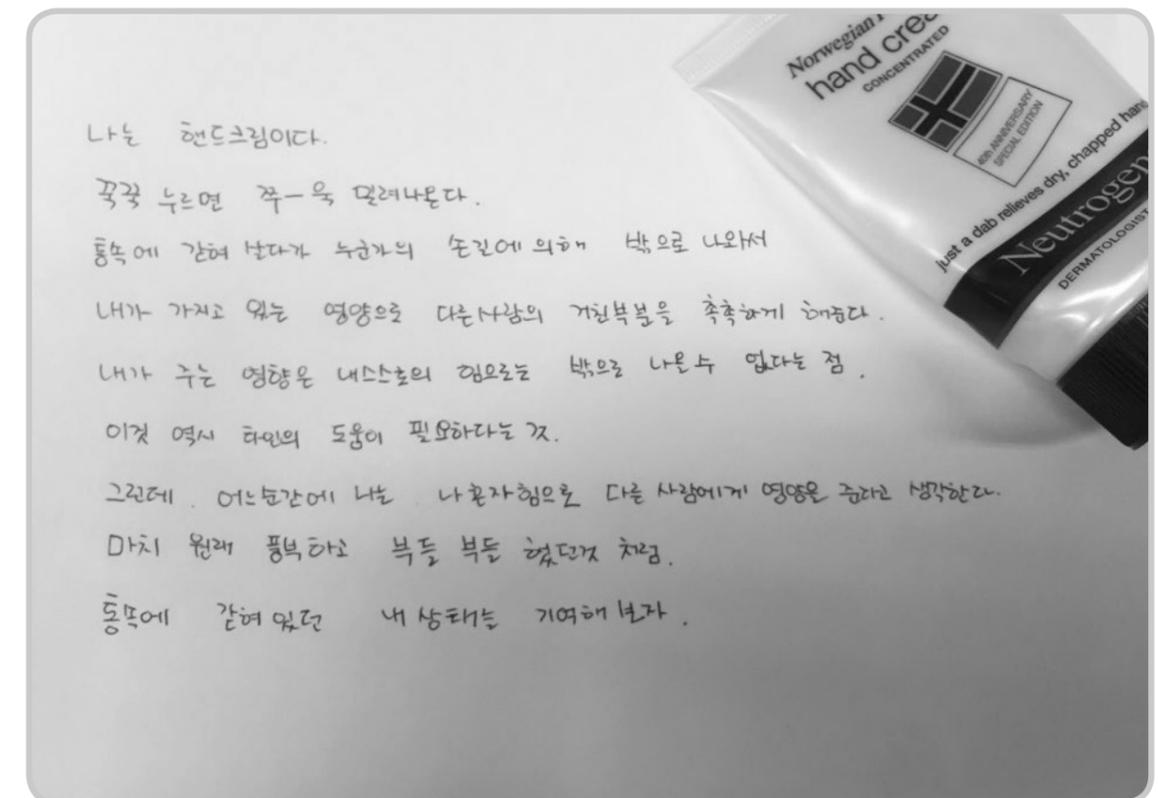
**나는 사탕이다. - 유자현-**

나는 조그만 알사탕이다. 달달하니 맛있다.  
 입안에서 녹으며 없어진다. 사람들의 뱃속으로 소멸된다.  
 달콤함을 주지만, 없어져 녹아버린다.  
 작고 달달한 조그만 알사탕  
 당이 필요한 힘든 사람들에게 당분을 주고 소멸해 버린다.  
 생각해보니 사탕은, 달콤한 사탕은 참 착한 것 같다.  
 나는 착한 인생 사는 사탕이다.  
 그런데 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치아가 썩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양치질만 잘하면 문제없기 때문에 크게 나쁜 문제는 아니다.  
 장점이 많은 사탕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산다. 그리고 나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짧은 인생을 잘못된 포인트로 허비하기도 한다.  
 갈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자,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살자  
 사탕, 작고 달달하지만 깔끔하니까  
 사탕은 그냥 책상에 놓여있는 자체로 손이 가는 정이 가는 존재이다.



**나는 핸드크림이다. - 김영희 -**

꼭꾸 누르면 쭈욱 밀려나온다. 통속에 갇혀 살다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밖으로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으로 다른 사람들의 거친 부분을 촉촉하게 해준다.  
 내가 주는 영양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나 혼자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준다고 생각한다.  
 마치 원래 충부하고 부들부들 했다는 것처럼  
 통속에 갇혀있던 내 상태를 기억해 보자



**나는 모나미 볼펜이다. -박지혜-**

나는 모나미 볼펜이다.

나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나뉜진 모나미 볼펜처럼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된다.

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한번쯤 사용해보았을 모나미 볼펜처럼 어디선가 한번쯤 만나보았을 누구나이다. 나는 잘 잃어버리는 모나미 볼펜처럼 그 누군가에게겐 잊혀진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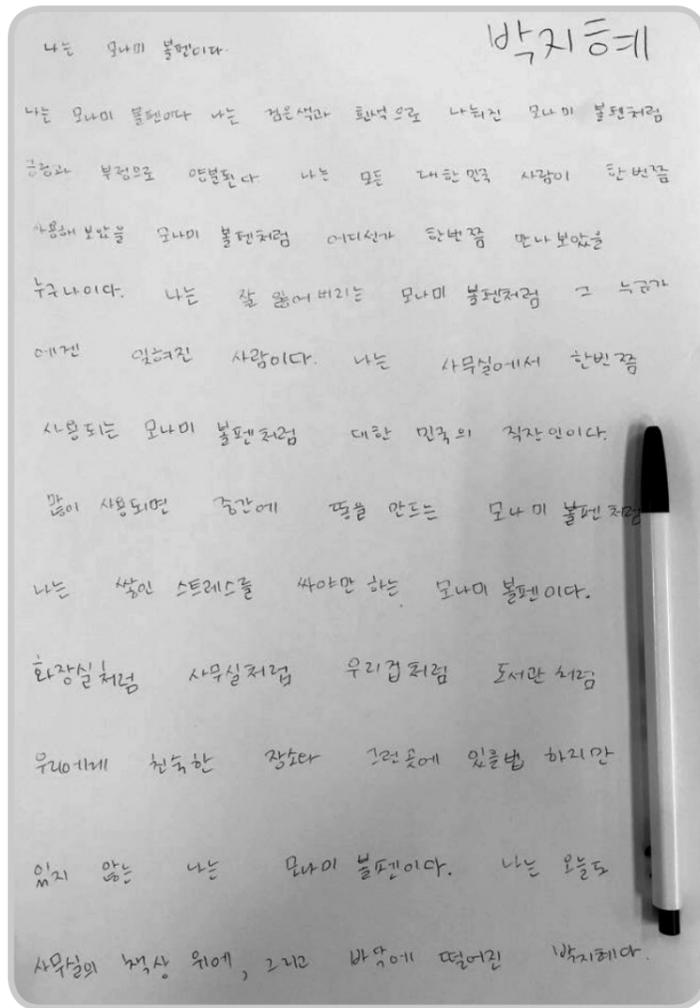
나는 사무실에서 한번쯤 사용되는 모나미 볼펜처럼 대한민국의 직장이다. 많이 사용되면 중간에 똥을 만드는 모나미 볼펜처럼 나는 쌓인 스트레스를 싸야만 하는 모나미 볼펜이다.

화장실처럼 사무실처럼 우리집처럼 도서관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장고화 그런곳에 있을법 하지만,

있지 않는 나는 모나미 볼펜이다.

나는 오늘도 사무실의 책상위에,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박지혜다.



**□ 후기**

우리 모임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구축된 관리자들의 모임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1차-첫번째	6월 26일	학습소모임 주제 선정	- 학습주제 선정 및 일정별 내용 논의	그룹내
의견) ·홍보, 마케팅 관련 역량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특정 업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으면 한다. ·힐링 및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 넘친다. ·신입의 어려움들을 담은 신입 메뉴얼 제작? ·모든 의견을 반영해 볼 때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기성찰도 하고, 글쓰기를 통해, 문서 작성시 사용할 수 있는(실무적) 콘텐츠를 구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쓰기 결과물로 12월에 신입들의 마음을 담은 시집발간도 의미 있을 것 같다. - 주제선정: “글쓰기” - 목표: 글쓰기와 같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업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차-두번째	8월 24일	글쓰기 스텝 1 - 도입	글쓰기 과정 이해하기	강사: 이임복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대표)
‘읽기, 쓰기, 말하기’ -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다. - 글쓰기는 두렵다/ 글쓰기도 훈련이다. (글은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다.)  1. 마음가는데로 편하게 글쓰기 2. 글쓰기 스킬 올리기 Step 1) 글쓰기전에 말을 해보자. (Free Writing) Step 2) 자신에게 가장 큰 이슈에 대해 써보자 (생각해 보자) Step 3) 작은 노트를 마련해 보자. (노트와 펜, 글감) 3. 좋은 글쓰기는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4. 글쓰기는 정확한 이유를 만든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꺼내보게 한다.) 5. 글쓰기의 기본 프로세스 수집- 정리- 발산 6. 수집하기 글감(화제, 정보, 감동, 논란) 1) 독서를 하고 정리하기 2) 일상에서 잡담, 수다, 말장난 3) 글감을 어떻게 글로 확장 시킬 것인가? (다르게 생각하기 ex 동화이야기)				

3차- 세 번째	9월 19일	글쓰기 스텝 2 - 실습	학습된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기	그룹내
<p>- 신입이 선정한 책 : 필사서적, 명견만리, 교양인이 되기 위한 즐거운 글쓰기, 초서 등</p> <p>- “백일장” (그대로 옮겨써도 되는 백일장, 설명이 중요하다. 장원에 박지혜 선생님) * 백일장 풍경</p>				
				
				

4차 - 네 번째	10월 26일	글쓰기 스텝 3 - 보완	실습한 내용을 강사님을 통해 수정 및 보완	강사:이임복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대표)
<p>○글쓰기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첫문장-내용-마무리</li> <li>1. 매력적인 제목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법 제시, 2)반전을 제목으로, 3)유명한 인용, 4)궁금하게 만들기</li> <li>- 서점에서, 뉴스에서, 마침내, 오직, 이유는? 숫자넣기</li> <li>ex) 한달에 한시간 자원봉사 =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자.</li> </ul> </li> <li>2. 첫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첫문장 쉽게 시작하는 3가지 방법</li> <li>- 담담하게 서술로 시작하기, 인용으로 시작하기, 질문으로 시작하기</li> <li>- 글쓰기는 두렵다/ 글쓰기도 훈련이다. (글은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다.)</li> </ul> </li> <li>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y: 왜 이글을 쓰는가? (배경, 목적, 취지, 의도 등)</li> <li>- Story: 전하려는 정확한 내용, 뼈대</li> <li>- So What?: 소감, 감상, 느낌, 행동의 촉구</li> </ul> </li> <li>2) 내용쓰기 4가지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줄 요약: 이글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건 무엇인가?</li> <li>- 최대한 쉽게 쓰기: 어렵고, 화려하게 쓰고 싶은 마음을 버려라, 가능하면 짧게 쓴다. (문장 다이어트)</li> <li>많은 부사와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고 보여줘라.</li> </ul> </li> </ul> </li> <li>4.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글쓰기는 글쓰기로만 배울 수 있다.</li> <li>2) 글은 '가슴'으로 쓰고 '머리'로 고친다.</li> </ul> </li> </ul>				

5차- 다섯 번째	11월 24일	나만의 책 만들기	우리만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그룹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것에 대한 나눔</li> <li>- 특강 '비틀어바라보기'를 통한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 깨우기</li> <li>- '나는 ○○이다.' 멈추지 않고 써내려간 글</li> </ul>				

\* 신입이란 시기를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지나보니 별거아니지”  
 -2017 신입관리자 1가-